



EAI 여론브리핑 제22호

(엠바고 : 2008. 3. 18. 21:00 GMT, 한국시간 3.19 오전 6시)

WPO · EAI · 경향신문 공동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WORLDPUBLICOPINION.ORG

제2차 “중국-티벳 갈등에 대한 6개국 인식”

[참여국가 : 16개국]

유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북남미 미국 멕시코
중동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이집트

※ 현재 일부 국가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22개국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6개국 14,896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만 소개한다.

※ 조사일시 : 2008년 1월~2월

※ 전체 응답자 수 : 티벳 이슈만 6개국 4,774명만 참여

[발표 주제]

중국의 대티벳정책을 보는 서방과 아시아의 인식 차이

[발표계획]

차수	일시	주제	비고
1차	3월 7일	인권1. 여성권과 양성평등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2차	3월 19일	인권2. 중국의 대티벳정책	6개국 조사
3차	3월 21일	인권2. 인종차별	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미정	5월 3일	인권3. 언론의 자유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 날
미정	6월 26일	인권4. 고문의 인권침해	6월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미정	미정	인권5. 낙태	
미정	미정	현안1. 정치적 민주주의	정부구성과 운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미정	미정	현안2. 정책결정과 여론	각국 정책결정에 여론의 역할
미정	미정	현안3. 국제위협과 리더십	세계 주요 지도자 평가/중동평화와 UN
미정	미정	현안4. 새로운 위협과 대응	에너지/핵폐기 국제협약/중국-티벳 문제



프로젝트 개요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 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종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HCHR(유엔고등인권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양성평등/인종차별/언론의 자유/고문/낙태/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석유 에너지 자원/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 중국과 티벳)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

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의식조사 연구팀

한국조사 개요

- 전체기획 :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경향신문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11일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제주 제외)
- 표 본 : 600명
- 표본추출 : 계층화된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 4.0%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가중치 부여
- 연 구 팀
 - 연구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연 구 팀 :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 이근수(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간 사 : 곽소희(EAI 연구원)

관련문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02-2277-1683(내선102)



티벳 독립에 대한 대한 6개국 조사

: 한국인이 중국의 대(對)티벳 정책에 가장 비판적(84%)

- “티벳 독립 허용해야 한다” 프랑스(75%), 미국(74%), 영국(63%) 순
- 아시아 3개국은 인식 엇갈려 한국(84%), 인도네시아(54%), 인도인만 37%로 과반수에 못미쳐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은 화평굴기 즉, 주변국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해가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구상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어서 작년 2007년 동아시아연구원이 참여한 BBC 국제현안 27개국 조사결과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42%)이 일본(54%) 다음으로 높게 나온 바 있다. 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30%)이나 동반 부상하고 있는 인도(37%)에 비해 국제사회의 따뜻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다[그림1].

이러한 중국에게 있어 티벳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티벳 독립 요구에 강압적으로 대처하는 중국의 대티벳 정책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주관하고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과 경향신문이 함께 참여한 2008년 22개국 국제인권의식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티벳 자치권을 허용하지 않고 달라이라마의 귀국을 막는 중국의 대(對)티벳 정책에 대해 평가에 참여한 6개 나라 조사결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나라에서 모두 중국에 비판적이었다.

서방 국가로서 조사에 참여한 미국 국민의 74%, 프랑스 국민의 75%가 중국이 티벳 독립을 허용하고 달라이라마의 귀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영국 국민들은 65%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조사에 응한 아시아 3개국 조사에선 나라마다 입장차이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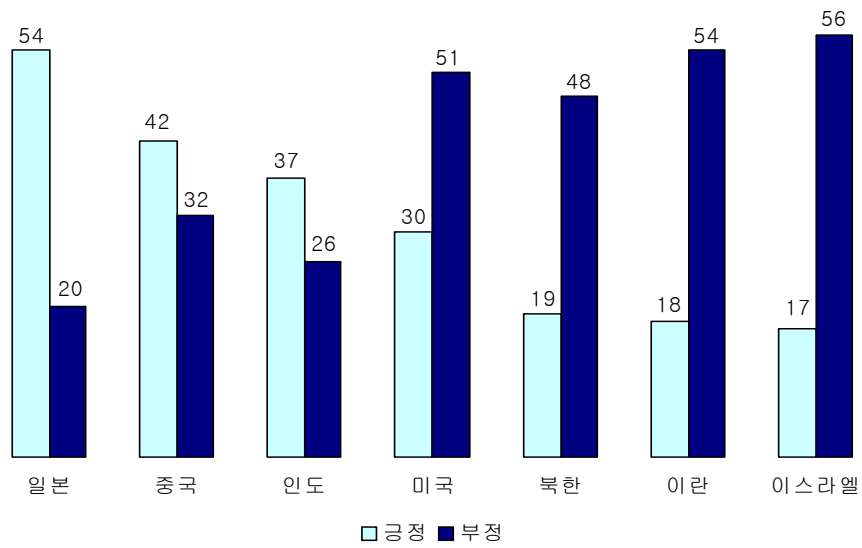
한국이 84%가 중국이 티벳 자치권과 달라이라마의 귀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조사국들 중 중국정부 입장에 가장 비판적 여론이 많았다. 반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54%로 과반수를 살짝 넘는 수준이었다. 인도 국민은 37%는 중국이 티벳자치권과 달라이라마의 귀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3%는 티벳 독립을 반대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팽팽하게 맞섰다. 나머지 30%는 입장을 유보했다.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지식인 계층일수록 중국의 티벳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한국만 보더라도 중졸이하 계층에서는 66%만이 중국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고졸 계층에서는 78%가, 대재이상 층에서는 88%가 중국의 현 티벳정책에 비판적이다. 각국의 여론주도층이 중국의 티벳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더욱 당혹스러울 수 있다.

본 조사는 2008년 1월 18일부터 2월 29일까지 6개국 4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현재 티벳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대응이 외신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월드퍼블릭오피니언의 스티븐 쉘 박사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중국은 더 큰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림1] 2007년 세계 주요 국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27개국 평가



[그림2] “중국이 티벳 자치권과 달라이라마 귀국 허용해야 한다”

